

IV 학생부(교과, 종합)위주 면접고사 준비 가이드

2021학년도 면접고사 준비 가이드

면접이란 지원자의 사고력과 잠재력 그리고 성장 가능성 등을
“목적이 있는 대화”를 통해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는 공개 선발방식입니다.

1. 선행학습 영향평가 실시에 따른 면접문항 사전공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에 준하여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에서 면접 문항의 출제 및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원학과(부)별 면접문항은 면접고사 5일 이전 입학홈페이지에서 사전 공지합니다.

2. 일반면접 VS 심층면접

가. 면접유형 분석하기

면접유형	면접방법	주요내용
일반면접	다 대 다 (면접관) (지원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러명의 면접관이 다(多)수의 수험생을 한번에 평가하는 면접방식 ▶ 동시에 여러 명을 평가하므로 개별면접보다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심층면접	다 대 일 (면접관) (지원자) 3명의 면접관이 1명의 지원자를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명의 면접관이 1명의 지원자를 평가하는 면접방식 ▶ 1명의 지원자를 심층적으로 평가하므로 수험생의 정신적 압박과 긴장이 높아 질 수 있습니다.

나. 면접유형 안내

면접유형	면접방법	주요내용
일반면접	다 대 다 (면접관) (지원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부교과 전형의 기본 성적반영방법(학생부 100%)에서 벗어나 면접의 실질반영 비율을 높임으로써 정량적인 성적만으로 학생을 선발하지 않고 면접을 통해 지원자의 지원학과(부)에 대한 기초학업능력, 사고력, 잠재력 등을 평가하고자 합니다. ▶ 면접고사 대비에 있어 지원학과별 특성을 정확히 파악하고, 질문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여, 답변 내용을 창의적으로 준비한다면 여러분의 합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심층면접	다 대 일 (면접관) (지원자) 3명의 면접관이 1명의 지원자를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교과 영역에 대한 중점적인 평가로 학교생활에 대한 성실함을 바탕으로 기초학업 능력, 잠재력, 인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자신의 진로에 대한 뚜렷한 의지와 목표의식으로 자신의 꿈을 향해 열정적으로 도전하는 인재를 선발합니다. ▶ 목원사랑인재전형은 전체 입학성적의 50%를 성적에 반영하므로, 교과, 비교과 영역의 실적이 부족한 학생이라도 그 부족한 부분을 면접에 의해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습니다.

면접 이전 전략으로 대비하세요!

1. 대학별/모집단위별 특성을 정확히 파악하기

지원한 학과(부)의 특성을 잘 알아야 합니다. 우선 대학의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공지된 면접문항의 의미를 숙지하고 문항의 성격을 미리 파악하여 지원한 학과에 입학하고자 하는 목적을 분명히 어필할 수 있다면 면접관에게 해당 분야에 관심이 많다는 것이 설득력 있게 전달될 것입니다.

2. 자기 자신에 대해 잘 알고 말할 내용 정리하기

면접은 수험생의 학습 능력뿐 아니라 인성, 적성, 잠재력 등을 포함한 종합평가이므로 자신의 생각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발표력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고 꾸준한 연습을 통해 예상 질문에 대한 대답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자신감과 유연한 사고능력

자신감을 잃으면 면접고사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얻기가 어렵습니다. 자신의 약점도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여유와 답변이 어려운 질문에도 당황하지 않고 ‘힌트 좀 주시면 안될까요?’ 라는 질문을 하면서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는 것이 좋습니다. 면접은 일반면접과 심층면접으로 구분되어 대략 15분 내외로 진행됩니다. 만약 면접관이 자신의 답변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거나 추가 질문을 할 때 자기와 의견이 다르다고 하여 무시하거나 부정하는 자세는 좋지 않습니다. 반론에 대한 두 견해의 장단점을 비교하면서 논리적인 답변과 유연한 사고능력을 펼친다면 면접에 있어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공통 질문 외 면접준비하기!

가. 1분 자기소개

면접평가에 있어서 자기소개는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질문입니다. 간혹 1분 자기소개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1분 자기소개는 지원자의 첫인상이 좌우될 수 있습니다.

나. 지원한 학과(부)의 지원동기

학생부에는 나와있지 않는 지원자의 사고력과 잠재력을 평가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지원동기를 통해 전공적성, 창의적 전문성, 종합적 문제해결능력 등을 평가하므로 지원자의 합격의 당락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면접에서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한 노하우

가. 목소리와 말하는 습관

면접관들은 지원자들의 출중한 외모보다는 설득력 있는 목소리를 가진 지원자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목소리만 좋아서는 안 되겠죠? 목소리와 어투 그리고 때로는 고급어휘를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연습하기 위해서는 녹음기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자신의 목소리를 녹음하고 직접 들어 보면서 평소 말하는 습관을 확인하여 올바르게 교정하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나. 좋은 인상과 바른 자세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의 표정, 인상에 대해 물어보고 너무 날카롭지는 않은지, 멍한 표정을 자주 짓는 것은 아닌지 혹시 좋지 않은 표정을 짓는 습관이 있다면 반드시 고쳐서 면접을 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 가지 좋은 방법으로는 평소에 쓰지 않던 안면근육을 사용하여 표정을 자연스럽게 만들면 좋은 인상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다. 자신감있는 모습

태도가 비굴하거나 면접관에게 애걸하는 태도는 금물! 당당하고 활기찬 태도와 언행으로 면접관을 설득해야 면접에서 승산이 있습니다.

짧은 시간에 자신의 장점을 최대한 보여줄 수 있도록 하며, 실수를 두려워 하지 말고 미리 준비했던 명랑한 목소리와 밝은 표정으로 면접관에게 신뢰감을 주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면접고사 장소에서 시선처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할 때에 계속적으로 상대방의 눈만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으면 오히려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략 10초 이내로 눈, 코, 입, 목, 볼 등으로 시선을 살짝 비켜주는 것이 시선처리의 tip이라 할 수 있습니다.

면접관에게 좋은 이미지 주는 비법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

- ✔ 잘 어울리는 복장
- ✔ 바른자세
- ✔ 자신감 있는 목소리
- ✔ 간단명료 한 답변
- ✔ 인사를 잘하는 것
- ✔ 전공 관심
- ✔ 솔직함
- ✔ 당당함
- ✔ 재치/유머
- ✔ 환한 표정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

- ✔ 말끝 흐리기
- ✔ 시선 회피
- ✔ 다리떨기
- ✔ 나쁜 발음
- ✔ 작은 목소리
- ✔ 긴 설명
- ✔ 리더쉽 부족
- ✔ 요란한 옷차림
- ✔ 한숨 쉬기
- ✔ 무의식적인 버릇

